현대소설연구(제92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23.12.92.273

남성 화자의 자기 서사 속 여성 주체성 재건 연구*

-「무진기행」의 하인숙을 중심으로

조 은 정**

요약

본 연구는 김승옥의 「무진기행」에서 남성 화자인 윤희중의 서술이 주관적인 주인공 시점에서 객관적인 관찰자 시점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이를 통해 주관적 자기 서사에서 간과되었던 여성 인물의 진정한 성격과 주체성을 후반부의 객관적 서사에서 재조명하고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선행 연구들이 윤희중의 관점과 서술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는 하인숙이라는 여성 인물이 윤희중의 관찰자적 서술 속에서 어떻게 여성 주체성을 드러내고 변화하는지를 분석한다. 첫째, 본 연구는 윤희중의 서술이 그의 내면적 욕망과 감정에 의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며 그의 도시적 관점 및 하인숙에 대한 인식과 서술 방식의 변화를 탐구한다. 둘째, 본 연구는 하인숙이 윤희중의 서술을 통해 처음에는 이상화되었다가 그의 실망감으로 인해 객관적이고 관찰자적 시점으로 서술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서술의 전환을 통해 독자들은 하인숙이 윤희중의 내면적 욕망의 실체를 깨닫고 사회적 규범에 대해 깊은 인식과 성찰을 하는 과정에 주목하게 된다. 이 과정은 하인숙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주체성을 재건하는 과정을 드러내며, 이는 서울행을 포기하는 그녀의 결정이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하인숙과의 관계에서 윤희중의 자기 기만이 어떻게 그의 인식과 태도를 왜곡시키는지에 대해 통찰력 있게 분석한다. 이를 통해 윤희중의 자기중심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22S1A5B5A170499)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 2023년 제64회 현대소설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경상국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적 사고와 자기 기만이 소설의 극적 아이러니를 형성한다는 점을 보인다.

주제어: 자기 서사, 자기 기만, 여성 주체성, 서술의 전환, 믿을 수 없는 화자, 극적 아이러니

목차

1. 들어가며
2. 남성 화자에 의한 상반된 서술 방식
3. 하인숙의 여성 주체성 재건
4. 남성 화자의 자기 기만과 극적 아이러니
5. 나오며

1. 들어가며

김승옥 작품은 남성 주인공의 자기 서사와 문체적 혁명을 통해 한국 문학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소설은 개인의 발견과 한국전쟁 이후 국토재건과 같은 집단적 노력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현실에 대한 환멸과 이를 초월하는 방식을 다루며 문체의 새로움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남성 주인공의 내면세계에 집중하면서 여성 인물들에 대해서는 진지한 관심이 없었다.[1] 일부 연구자들은 김승옥이 여성 인물들을 폄하하는 방식으로 소설에 형상화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김승옥 작품이 여성 인물들을 왜곡된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2]

1) 김승옥 작품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1960년대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김승옥의 문학이 가져온 혁신에 주목한다(김지하, 「무진나그네」, 『내가 만난 하나님』, 작가, 2015, 200면.; 박혜경, 「남성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들」, 『한국문학연구』 19, 한국문학연구소, 1997, 5-22면 참조.).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그의 작품을 감수성과 문장의 혁신으로 평가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주로 초기 작품에 국한된다. 후기 작품들은 선정적이고 통속적인 대중소설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까지의 연구는 김승옥의 초기 작품을 본격소설로, 후기 작품을 통속소설로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 비평가들이나 연구자들의 시각과는 다르게 김승옥 소설이 단순히 남성 중심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복잡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여성 인물들의 경험을 다루고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한다. 이를 위해 먼저 김승옥 작품 초기, 중기, 후기에 나타나는 여성들의 특징을 요약한 다음, 많은 독자에게 널리 읽히고 영화로도 각색되어 널리 알려진 김승옥의 대표작 「무진기행」의 여성 인물이 선행연구에서 어떻게 분석되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김승옥의 초기 작품들은 남녀 주인공 관계가 남성 중심의 근대화 질서에서 형성되며, 여성 인물들이 남성적 질서에 종속되어 힘이 없고 타자화된 상태로 묘사된다. 이 시기의 여성 인물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하고 남성과 남성적 질서에 의해 이용되는 상황에 놓인다.[3] 김승옥 중·후기 작품 속 여성 인물들은 타자화된 존재에서 벗어나 점차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로 변화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탐색된다. 김승옥의 중기 작품에서 여성 인물들은 초기 작품의 수동적이고 희생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신의 위치를 찾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4]

---

2) 강지윤은 김승옥의 「무진기행」을 분석하면서 문학사가 오랫동안 여성의 경험과 존재를 망각하고, 대신 남성의 괴로움과 고뇌를 중심으로 한 미학을 승인하였다고 비판한다 이는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가 문학에서 소외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강지윤, 「감수성의 혁명과 반(反)혁명-김승옥의 「무진기행」과 '여성'이라는 암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20, 196면.). 송영실은 1960년대 전후문학의 기적으로 불리며 감수성의 혁명 및 혼란스러운 당시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김승옥 작품이 전통적인 가부장제 이념과 수동적인 여성상에 대한 신비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송영실,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나타난 여성이미지 연구-남성작가의 소설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58-67면 참조. 66면.)

3) 강지윤, 「개인과 사회, 그리고 여성: 1950~1960년대 문학의 내면과 젠더」, 『민족문학사연구』 67, 민족문학사연구소, 2018, 533면.; 김명석, 『김승옥 문학의 감수성과 일상성』, 푸른사상, 2004, 161면.; 송영실, 앞의 글, 58-67면 참조.; 양한진, 「김승옥 소설의 여성인물 변화연구」, 『한남어문학』 40, 한남어문학회, 2017, 145면.

4) 예를 들어, 「야행」의 현주는 성적 일탈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 소극적이다. 그러나 낯선 남자와의 강제적인 일탈을 통해 새로운 자각에 이르게 되며, 이를 통해 일상의 속임수와 사회적 부조리를 폭로한다(김미란, 「국가 재건의 시대와 대도시를

김승옥의 후기 작품들은 여성 인물들의 사랑, 결별, 재결합을 통해 인간 관계의 복잡성과 인격적 상호작용을 탐구한다.[5)]

한편, 비교적 초기 작품에 해당하는 「무진기행」의 선행 연구는 하인숙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제안한다. 하인숙이 김승옥의 초기 작품에 나타나는 다른 여성들처럼 남성 주인공의 세계 변화를 위한 희생양으로 분석하는 연구[6)]와 하인숙을 수동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대표하는 인물로 분석하는 연구가 있다.[7)] 반면에 하인숙을 자기 주체성을 찾아가는 독립적이고 진보적인 여성으로 분석하는 등 엇갈린 평가가 있다.[8)]

송영실[9)]은 하인숙이 소설 전반부에는 창녀로, 후반부에는 성녀로 묘사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하인숙의 서울행 포기가 윤희중과의 화합 가능성과 대비되는 순수한 사랑의 선택을 나타낸다고 분석한다. 곽상순[10)]도 하인숙이 합일 후 서울행을 포기하는 것을 순수한 사랑의 상징으로 해석하며, 이 결정이 윤희중에게 불안과 실존적 선택을 유발한다고 분석한다. 이는 하인숙이 윤희중과의 육체적 관계를 넘어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송영실과 곽상순의 이러한 분석이 김승옥의 전체 작

배회하는 여성 산책자: 김승옥의 「야행」(1969)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2,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437-465면.).

5) 예를 들어, 「서울의 달빛 0장」에서는 이혼 후 자신을 찾아 온 남편의 위자료 제안이 매춘의 대가로 해석되면서 한영숙은 이를 거부하고 통장을 찢고 그와 완전히 결별한다. 이 결정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인격적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다(곽상순, 「김승옥 단편소설의 여성인물 연구-「야행」과 「서울의 달빛 0장」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9,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0, 143-164면.).

6) 강지윤, 「감수성의 혁명과 반(反)혁명-김승옥의 「무진기행」과 '여성'이라는 암호」, 앞의 글, 187면.; 김명석, 위의 글, 161면.

7) 송영실, 앞의 글, 58-67면.; 곽상순, 「김승옥의 「무진기행」 연구 -'무진'과 '하인숙'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44, 국제어문학회, 2008, 272-273면.

8) 차미령, 「김승옥 소설의 탈식민주의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9) 송영실, 위의 글, 58-67면.

10) 곽상순, 「김승옥의 「무진기행」 연구 -'무진'과 '하인숙'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위의 글, 272-273면.

품 세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 실제로 후기 작품에서는 여성 인물들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복잡하고 다층적인 여성상을 탐구하며 초기 작품인 「무진기행」의 하인숙도 이러한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인숙의 행동과 선택을 단순한 사랑의 추구로만 보는 것은 김승옥의 여성 인물 묘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와는 달리 하인숙을 자신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려는 인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차미령[11]은 하인숙이 윤희중에게 서울에서의 자신을 투사하는 점에서 윤희중을 서울에서의 하인숙으로 '다시 읽기'(re-reading), '역전해서 읽기'(counter-reading)라는 페미니즘적 독서 방식으로 작품을 새롭게 읽을 것을 제안한다. 그녀는 하인숙이 서울 경험을 통해 자신을 서울 사람으로 의식하고, 서울로의 복귀를 갈망하는 인물로 분석한다. 이러한 접근은 선행 연구에서 하인숙을 단순히 고향이나 무진, 그리고 순진했던 과거의 윤희중과 연결된 인물로 보는 시각과 대비된다. 차미령은 하인숙에 대한 이러한 분석이 윤희중 중심의 서사와 결합된 것임을 지적하며, 윤희중의 시선과 차단하고 소설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하인숙을 김승옥의 다른 작품 속 여성들과 다르게 읽기 위해 차미령이 「무진기행」에서 집중한 부분은 주로 대화나 보여 주기 기법이 전개되는 곳에 한하여 분석한다. 왜냐하면 무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인숙이 아닌 윤희중의 시각으로 전개되고, 대부분 윤희중에게 내적 초점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복순[12]은 윤희중의 서술이 하인숙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만 묘사하고 그녀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심리를 간과한다고 비판한다. 그녀는 이러한 서술이 하인숙의 시선을 배제하고 그녀를 단순히 성적 소유의 대상으로만 그리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김복순은 이 텍스트에

11) 차미령, 앞의 글, 57-58면.

12) 김복순, 「남성/여성 만보의 담론화 과정과 감각적 인식: 「무진기행」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3,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291면.

대해 '젠더화된 읽기'를 한다면 독자들은 하인숙의 내면적 갈등과 성찰을 읽어 낼 수 있으며, 하인숙을 더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인물로 재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접근은 하인숙이 윤희중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욕망을 포기하고 자기 반성의 과정을 겪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는 작가의 의도가 아닌 텍스트 자체에서 가능한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김복순은 강조한다.

'다시 읽기', '역전해서 읽기', '젠더화된 읽기'는 문학의 정전을 새롭게 해석하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러한 접근법은 가부장적 시선을 배제하고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그러나 김승옥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작가의 의도와 방향성을 고려할 때, 하인숙의 여성 주체성이 이러한 독해 방식에만 의해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하인숙의 주체성이 단순히 독자의 읽기 방식에 의존하여야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작가 김승옥의 의도적인 구성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는『산문시대』창간 회원들의 선언과 김승옥의 중·후기 작품에서 나타나는 여성 인물들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묘사를 통해 뒷받침된다. 본 연구는 작가가 윤희중이라는 남성 화자를 희화화하고 풍자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하인숙의 주체성과 자기 각성을 소설에 드러나도록 문학적 장치를 하였다고 분석한다.

본 연구는 화자의 관점이 독자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요인에 착안하여 김승옥의「무진기행」에 내재된 서술 전략과 문체에 주목하고자 한다. 김승옥 작품의 고백적 자기 서사는 병리적 자의식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로, 김영찬[13]은 선행 연구들이 이 어두운 면과 병리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고 비판한다. 강지윤[14]은 남성 주인공들이 여성 인물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순수함을 보증하는 장치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고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한다. 김현[15]은 김승옥 작품

13) 김영찬,「김승옥 소설의 자기기만의 현상학」,『한국학연구』68, 한국학연구소, 2023, 464면.
14) 강지윤,「개인과 사회, 그리고 여성: 1950~1960년대 문학의 내면과 젠더」, 앞의 글, 534면.

속 주인공들은 자신의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기기만과 위선을 사용하며, 김승옥이 이를 풍자적으로 다룬다고 분석한다.

본 연구는 윤희중의 주관적인 시각과 내면적 욕망이 그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을 보이고 남성 화자의 이러한 왜곡된 인식이 어떻게 여성 인물 하인숙의 진정한 성격과 주체성을 가리는지 분석한다. 합일 이후 윤희중의 실망감이 그의 서술에 반영되면서 그 자신과 하인숙에 대한 묘사가 더 객관적이고 관찰자적인 시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하인숙의 진정한 성격과 주체성이 작품에 드러나는 것에 대해 분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서술의 전환을 통해 하인숙이 남성 화자의 이상화된 성적인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과 행동을 주도하는 독립적인 인물로서의 면모가 드러나는 방식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작가가 서술의 전환이라는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여 남성 화자의 왜곡된 인식을 폭로함으로써 남성 인물을 희화화는 반면 여성 인물의 주체성은 남성 화자의 왜곡된 인식을 넘어서는 방식을 통해 드러나도록 의도적으로 구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설을 보면 작품 내에서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이는 작품 속 여성 인물들이 단순한 희생양이나 남성 주인공의 감정적 도구로만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적 갈등, 사회적 위치, 그리고 당시 문화적 상황에 대한 반영으로 등장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김승옥 작품이 당시 한국 사회의 젠더 역학과 여성의 위치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비판적 성찰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하인숙의 주체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김승옥 소설이 가지는 문학적 깊이와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해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15) 김현, 「구원의 문학과 개인주의」, 『현대 한국 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 문학과지성사, 1992, 391면.

2. 남성 화자에 의한 상반된 서술 방식

김현[16]은 「무진기행」을 '시골과 서울의 변증법적 대립'으로 보았으며, 이 관점은 표준적인 해석이 되어 이후의 선행 연구[17]들은 「무진기행」을 대립항 사이에서 출세한 촌놈이 느끼는 '의식의 균열'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그러나, 신형철[18]의 분석에 따르면, 「무진기행」의 윤희중은 "완전히 도시화된 인물"[19]로 묘사되며, 그의 시각은 전형적인 도시인의 관점을 반영한다.[20] 이러한 관점은 윤희중이 무진과 그곳의 인물들, 특히 하인숙에 대해 서술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윤희중의 서술이 그의 도시적 배경과 내면적 욕망에 의해 왜곡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그의 서술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의 서술이 무진의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하인숙에 대한 그의 인식이 실제 그녀의 모습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윤희중의 서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의 주관적 관점과 욕망에 의해 왜곡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진은 윤희중에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으로 기능하며, 그는 여기서 일탈적 행위도 가능함을 느낀다. 서울에서 제약회사 사장인 장인어른과 아내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 불가피한 여러 가지 작업을 알아서 처리하는 동안에 윤희중은 그 일과 무관한 사람인 양 지내면서 무진에서 "아내

16) 김현, 앞의 글, 383면.

17) 예를 들면 다음의 선행연구들이 있다. 김보우, 「김승옥 소설의 글쓰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진정석, 「글쓰기의 영도-김승옥」, 『문학동네』 7.여름, 문학동네, 1996.; 최혜실, 「〈무진기행〉에 나타나는 귀향과 귀경의 구조」, 『국어교육』 81, 국어교육학회, 1993, 131-149면.; 한상규, 「환멸의 낭만주의」, 『196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3.; 한형구, 「김승옥론」, 『한국현대작가연구』, 민음사, 1989.

18) 신형철, 「여성을 여행하(지 않)는 문학-「무진기행」의 정신분석적 읽기」, 『한국근대문학연구』 10, 한국근대문학연구, 2004, 199-238면.

19) 위의 글, 200면.

20) 위의 글, 203면.

로 인해 얻게 된 사회적 지위를 배경으로 젊은 미혼여성과 즐길 수 있"[21] 다. 이러한 상황은 윤희중이 무진에서의 "공식적인 대타자의 눈길이 '안개'에 의해 단절"[22]되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탈이다.

윤희중과 하인숙의 첫 만남은 세무서장 조씨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이 자리에서 윤희중은 하인숙이 부르는 〈목포의 눈물〉에 매료되며, 그녀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한다. 또한, 이 자리에서 윤희중은 하인숙을 둘러싼 국어 선생 박군과 세무서장 조씨 간의 긴장된 관계를 목격격하게 되고 그 자신도 하인숙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 윤희중이 하인숙을 집까지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장면은 윤희중의 서술이 그의 감정과 욕망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다.

> "아, 글루 가세요. 그럼..." 내가 말했다. " 조금만 바래다주세요. 이 길은 너무 조용해서 무서워요." 여자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다시 여자와 나란히 서서 걸었다. 나는 **갑자기 이 여자와 친해진 것 같았다**. 다리가 끝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그 여자가 **정말 무서워서 떠는 듯한 목소리로** 내게 바래다주기를 청했던 바로 그때부터 나는 **그 여자가 내 생애 속에 끼어든 것을 느꼈다**. 내 모든 친구들처럼, 이제는 모른다고 할 수 없는, 때로는 내가 그들을 훼손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더욱 많이 그들이 나를 훼손시켰던** 내 모든 친구들처럼.[23] (인용자 강조)

윤희중의 서술에 따르면 그가 먼저 하인숙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그녀가 먼저 그의 삶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윤희중은 과거 친구들이 자신을 훼손했듯이 하인숙도 미래에 자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21) 곽상순, 「김승옥의 「무진기행」 연구 -'무진'과 '하인숙'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앞의 글, 265-266면.

22) 위의 글, 266면.

23) 김승옥, 「무진기행」, 『김승옥 소설전집1; 무진기행』, 문학동네, 2021, 176면.

러나 곽상순은 윤희중이 하인숙에게 매력을 느낀 이유로 박군과 조씨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하인숙이 “남자들 간의 경쟁의 게임에서 그녀가 ‘욕망의 모호한 대상’으로 작용”[24]한 것으로 분석한다. 곽상순과 같이 윤희중의 의중을 간파하는 독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때부터 하인숙이 마치 그를 유혹한 것 같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

윤희중은 후배인 국어 선생 박군에 대해 하인숙이 관심이 없음을 알게 된 이후 마치 사랑의 경쟁자가 없어진 양 혼자서 욕망의 나래를 펼쳐 나간다. 그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그 도달할 길 없는 거리를 보는 데 홀려서 멍하니 서 있다가 그 순간 속에서 그대로 가슴이 터져버리는 것 같았었”[25]던 과거의 자신을 소환한다. 집으로 돌아온 윤희중은 “그녀의 안타까운 음성”[26]을 기억해 내고, 그녀를 껴안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는 계속해서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며, 통금이 시작되어 해제될 때까지 불안한 상태로 밤을 보낸다. 이러한 서술은 윤희중이 하인숙을 자신의 내면적 욕망의 대상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을 드러낸다.

다음 날 윤희중은 세무서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하인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 대화를 통해 그는 국어 선생 박군이 하인숙의 사랑과 관심을 원하지만 하인숙은 그의 구애를 조롱거리로 삼고 있으며, 세무서장 조씨는 그녀의 육체를 열망하지만 그녀는 결혼 전 순결을 지키고자 그와의 합일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고 마음 속으로 감사함을 느낀다. 이는 윤희중이 하인숙이 누구의 소유가 되지 않고 순결을 지키고 있다고 인식하고 그녀의 처녀성에 대한 감사로 보인다.

오후에 윤희중은 하인숙과 자신이 한때 머물렀던 골방 근처의 바닷가

24) 곽상순, 「김승옥의 「무진기행」 연구 -‘무진’과 ‘하인숙’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앞의 글, 267면.

25) 김승옥, 앞의 글, 178면.

26) 위의 글, 180면.

에서 산책을 즐긴다.

> 나는 내게서 달아나 버렸던 여자[**그가 순수하게 사랑한 여자**]**에 대한 것과는 다른 사랑을 지금의 내 아내에** 대하여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구름이 끼어 있는 하늘 밑의 바다로 뻗은 방죽 위를 걸어가면서, 다시 내 곁에 선 여자의 손을 잡았다.[27] (인용자 강조)

그는 지금의 아내에게는 순수한 사랑을 느끼지 않지만 하인숙에게는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그런 그녀가 서울로 데려가 달라고 하니 그는 서울에서 그녀의 삶을 돌볼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이때부터 그는 하인숙과의 관계를 친구의 소개로 만난 단순한 지인이 아닌 특별한 사람, 예를 들면 연인으로 발전시키는 합리화를 시작한다. 그는 계속해서 "쓸쓸하다"[28]라는 서술을 함으로써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책임과는 달리 실존하는 자신의 쓸쓸함을 채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한다.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세상에서 편지를 처음 쓴 사람에 대해 "선생님[윤희중]처럼 외로운 사람일거예요."[29]라고 말하거나 "당신[하인숙]처럼"[30] 외로운 사람일 거라며 서로 공감하고 위로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무진기행」의 주인공 윤희중은 하인숙을 주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상상하며 서술한다. 이러한 서술은 하인숙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윤희중의 개인적인 욕망과 감정을 반영하는 경향을 보인다. 바닷가에서의 대화 장면까지 이어지는 윤희중의 서술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그의 내면적 욕망과 감정에 의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어지는 골방에서의 합일 장면에서 나타나는

27) 앞의 글, 188면.
28) 같은 면.
29) 위의 글, 189면.
30) 같은 면.

서술 방식의 변화는 수사학적 관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주인들은 나를 옛날의 나로 대해주었고 그러자 나는 옛날의 내가 되었다. 나는 가지고 온 선물을 내놓았고 그 집 주인 부부은 내가 들어 있던 방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 **나는 그 방에서 여자의 조바심을, 마치 칼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으로부터, 누군가 자기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주지 않으면 상대편을 찌르고 말듯한 절망을 느끼는 사람으로부터 칼을 빼앗듯이 그 여자의 조바심을 빼앗아 주었다. 그 여자는 처녀는 아니었다.** 우리는 다시 방문을 열고 물결이 다소 거센 바다를 내어다보며 오랫동안 말없이 누워 있었다.[31] (인용자 강조)

두 사람이 골방에 들어가는 장면부터 윤희중의 서술 방식에 변화가 감지된다. 윤희중은 하인숙과의 합일 과정을 명확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두 사람의 합일을 냉정하게 묘사하며, 이는 합일 전 그의 마음에 가득 찼던 욕망과 기대감과 대조를 이룬다.

수사학은 소설의 저자가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하는데, 이는 주관적인 화자의 서술 또는 객관적인 장면의 묘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32] 김승옥은 이 두 가지 수사적 장치를 결합하여, 윤희중의 서술을 통해 독자에게 제시되는 윤희중 자신과 하인숙의 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한다. 독자들은 윤희중이 박군이나 조씨는 함께 하지 못한 하인숙과의 친밀한 순간을 가진 것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은 독자의 예상과 소설 내용 간의 괴리를 드러내며, 이러한 차이는 윤희중의 내적 갈등을 반영한다.

---

31) 앞의 글, 190면.

32) Fischer, Therese, "From Reliable to Unreliable Narrator: Rhetorical Changes in Joyce's 'The Sisters.'" *James Joyce Quarterly* 9.1, 1971, p. 85.

윤희중의 내적 갈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골방 주인들이 윤희중을 과거의 그로 대하자, 그는 폐병을 앓으면 혼자 수음을 하던 과거의 자아로 돌아가 성적 욕망을 느끼게 된다. 골방에 오기 전, 윤희중은 하인숙이 세무서장과 사귀고 있지만 그와의 합일은 없었던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이때부터 하인숙과의 합일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어쩌면 처녀일지 모르는 이상적인 그녀와의 합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서술에서 승리감이나 만족감에 대한 묘사는 없고 대신 하인숙과의 합일을 냉정하게 묘사하며, 이는 그의 이전 서술과 대조를 이룬다.

「무진기행」에서 윤희중의 서술은 하인숙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감정과 기대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처음에는 하인숙을 이상화하며 그녀에 대한 매력과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윤희중의 서술이, 그녀와의 합일 이후에는 간략하고 객관적인 서술로 전환된다. 이러한 변화는 김승옥이 윤희중과 하인숙의 관계를 통해 제시하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관점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해 독자에게 보다 일반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독자가 소설을 통해 처음에는 윤희중의 주관적인 서술에 의존하여 하인숙의 성격을 이해하게 되지만, 소설 후반부에서 서술이 객관적인 묘사로 전환됨에 따라 보다 일반적인 하인숙의 성격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작가의 의도적인 구성과 문체적 전략을 반영한다. 이러한 간극을 느낀 독자는 보다 객관적인 대화나 장면 묘사를 통해 일반적인 사실을 파악하게 되며, 이 시점에서 하인숙에 대한 남성 화자의 주관적 서술과 인식에 대한 왜곡 여부를 진지하게 살펴보게 된다.

3. 하인숙의 여성 주체성 재건

윤희중의 서술 방식은 그의 내면 세계와 여성 인물들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다. 그의 서술은 자기중심적이며, 여성 인물들을 자신의 욕망과 기대에 따라 재구성한다.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인숙에 대한 그의 서술은 처음에는 그녀를 이상화하고 순수한 사랑의 대상으로 묘사하지만, 합일 이후에는 윤희중이 느끼는 감정을 자세히 서술하기보다는 하인숙이 그와 대화하는 내용과 대화 당시 두 사람의 행동과 태도,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서술로 전환된다. 이러한 서술의 전환은 윤희중이 등장 인물들을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그들의 복잡한 인간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음을 드러낸다.

김복순의 분석에 따르면, 「무진기행」은 전통적인 남성 중심적 서술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인숙의 시각으로 작품을 재해석하는 것은, 단순히 남성 화자의 가부장적 시각에 얽매여 작품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독자가 적극적으로 여성 인물의 관점으로 깊이 있게 읽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은 '젠더화된 읽기'라는 새로운 독해 방법이며 이는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독서 방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런데, 김복순은 이러한 독해는 작가가 의도한 것이 아닌 독자가 새로운 독해법으로 읽어 냄으로써 가능한 독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승옥 작품 전반에 걸친 의도와 방향성을 고려할 때, 하인숙의 여성 주체성이 '젠더화된 읽기'와 같은 현대적인 지평에서 읽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닐 수 있다.

김승옥 작가가 『산문시대』 창간호에서 밝힌 창작 의도와 그의 후기 작품을 함께 살펴보고 당시 글쓰기 방식이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문시대』 창간 회원들은 "얼어붙은 권위와 구역질나는 모든 화법을 우리는 저주한다."[33]라고 선언하였으며 김승옥 작가도 중·후기 작품에서 여

33) 1962년에 김승옥 작가는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으며, 이후 한국 문단에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는 공동 작업에 참여한다. 서울대 불문학과 동문이자 후에 비평가가 된 김현, 작가 최하림 등과 함께 1962년 6월에 창간한 『산문시대』는 기존의 다른 동인지들과는 달리 새로움을 추구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들은 창간사에서 "얼어붙은 권위와 구역질나는 모든 화법

성 인물들을 지고지순한 사랑이나 순결한 사랑과는 거리가 먼 인물로 그려낸다. 오히려 이들 여성들은 성적 억압으로 점철된 얼어붙은 권위에 도전하여 내면화된 성적 억압에 대해 스스로 깊이 있게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성적 쾌락에 대한 억압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34)]

김승옥 작품 속 다른 여성 인물들과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하인숙을 단순히 순수한 사랑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부분의 독자들과 연구자들은 「서울의 달빛 0장」에서 한영숙이 위자료를 거절했을 때, 그녀가 지고지순한 여자로 남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인격적인 한 인간으로 대접받고 싶은 욕망에서 그와 결별한 것으로 해석한다. 만약 어떤 독자가 한영숙이 위자료를 거절함으로써 지고지순한 사랑을 추구하는 여자로 변모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김승옥 작품에서 여성 인물들이 보여주는 복잡한 심리적 고민과 사회적 억압 및 차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간과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하인숙의 서울행 거부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독자들이 처음 느끼는 하인숙에 대한 인상은 윤희중의 서술을 통해 구축되며, 이는 그녀의 실제 모습과는 다를 수 있다. 윤희중은 하인숙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를 순수하고 이상적인 여성으로 묘사하며, 이는 그의

을 우리는 저주한다. 뼈를 가는 어두움이 없었던 모든 자들의 안이함에서 우리는 기꺼이 출발한다."고 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산문시대』는 기성세대의 문학적 권위와 화법을 부정하며 새로운 감수성을 한국 문학에 도입하는 데 큰 공적을 세웠으며, 동인지 작품들은 세대론적 부정 정신을 바탕으로 당대 상황의 환상과 환멸을 감각적으로 잘 형상화하였다.

34) 『보통여자』에서 여성 주인공은 결혼 전 순결이라는 사회적 억압에서 벗어나 약혼자와 합일함으로써 성적으로 개방되고 남자를 자기 것으로 적극적으로 소유하는 삶을 선택한다. 『강변부인』에서도 주인공은 가정주부인데 그녀의 남편이 아내와의 사랑은 조신하고 일반적인 성생활을 추구하면서 가정 밖에서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혼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가정에 대한 책임감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중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낯선 남자와 성적 쾌락을 맛보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면서 결혼 이후의 여성의 성생활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하기 시작한다.

내면적 욕망과 기대를 반영한다. 그러나 그들이 합일한 이후에, 윤희중의 서술은 그가 의미없는 그림을 그리거나 담뱃불을 붙이는 장면을 묘사하거나 하인숙이 그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반면 윤희중은 거의 성의없이 대답을 하는 모습을 관찰자적 시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는 하인숙이 윤희중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그녀에 대한 그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준다.

만약 윤희중이 "그녀를 차지했다는 사실, 그녀의 몸과 마음도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뿐 아니라 그것에 부수하는 일종의 승리감"[35]을 느꼈다면 승리에 대한 그의 흥분과 만족감을 묘사했을 것이다. 합일 중 그가 언급한 조바심은 사실 그녀의 조바심이 아니라 그의 조바심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이러한 조바심과 열망은 그녀의 순결한 세계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으려는, 또는 그것을 파괴하려는 그의 근본적인 의도를 드러낸다. 김복순의 분석대로 "하인숙의 사회적 필요를 가부장적 시선으로 재배치(하여) 하인숙의 사회적 필요를 '성적 필요'로 판단하면서 그녀의 성을 '빼앗"[36]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는 그가 바닷가에서 고백한 순수한 사랑과는 다른 그의 불순한 동기를 드러낸다. "그 여자는 처녀는 아니었다."[37]는 언급은 하인숙에 대한 이상화된 이미지와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실망감과 여성의 '처녀성'에 대한 그의 특정한 성적 관념을 반영한다.

윤희중의 서술과 어조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변화는 그의 심리적 상태와 내면적 갈등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골방에서의 합일 이전과 이후 그가 자기 서사로 언급하는 부분에서 뚜렷한 차이가 관찰된다.

35) 곽상순, 「김승옥의 「무진기행」 연구 -'무진'과 '하인숙'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앞의 글, 270면.
36) 김복순, 앞의 글, 286면.
37) 김승옥, 앞의 글, 190면.

> **"서울에 가고 싶어요. 단지 그것뿐예요." 한참 후에 여자가 말했다.** 나는 손가락으로 여자의 볼 위에 **의미 없는 도화를** 그리고 있었다. **"세상엔 착한 사람이 있을까?"** 나는 방으로 불어오는 해풍 때문에 **불이 꺼져 버린 담배**에 다시 불을 붙이며 말했다. "**절 나무라는거죠? 착하게 보아주려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도 착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우리가 불교도라고 생각했다. "선생님은 착한 분이세요?" "인숙이가 믿어주는 한." 나는 다시 한 번 우리가 불교도라고 생각했다. 여자는 누운 채 내게 조금 더 다가왔다. "바닷가로 나가요 네? 노래 불러드릴게요." 여자가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지 않았다. "**바닷가로 나가요, 네? 방이 너무 더워요."** 우리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다. 우리는 백사장을 걸어서 인가가 보이지 않는 바닷가의 바위 위에 앉았다. 파도가 거품을 숨겨 가지고 와서 우리가 앉아 있는 바위 밑에 그것을 뿜어 놓았다. "선생님" 여자가 나를 불렀다. 나는 여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자기 자신이 싫어지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자가 꾸민 명랑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기억을 헤쳐 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언젠가 나와 함께 자던 친구가 다음날 아침에 내가 코를 골면서 자더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였지. 그땐 정말이지 살맛이 나지 않았어." 나는 여자를 웃기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여자는 **웃지 않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거렸다.**[38] (인용자 강조)

윤희중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기고백적 서사보다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당시의 윤희중과 하인숙의 태도를 집중적으로 묘사한다. 그는 하인숙이 처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세상엔 착한 사람이 있을까?"[39]라고 질문한다. 아마도 윤희중은 그녀가 세무서장에게 합일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상기하며 그녀가 처녀행세를 하고 다녔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러나 화자가 그의 속마음을 굳이 서술하지는 않으니 독자들은 속

38) 앞의 글, 190-191면.

39) 위의 글, 190면.

내를 알 수 없다.

하인숙이 “선생님은 착한 분이세요?”[40]라고 되물어도 그의 반응은 진지한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의미 없는 도화”[41]를 그리고 “꺼져 버린 담배에 불을 붙이는”[42]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그의 실망감과 내면적 갈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그의 감정과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 독자에 따라 다르게 독해할 수 있지만, 윤희중이 자신의 실망을 “불이 꺼져버린 담배”[43]에 비유하고, 그녀를 다시 사랑하려는 노력을 “불이 꺼져버린 담배에 대해 불을 붙이”[44]는 것에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인숙을 다시 사랑하려는 노력은 이후에 이어지는 대화나 그의 태도로 볼 때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고 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그녀를 원하는 듯하다.

윤희중의 실망과 관련하여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자. 1960년대 한국은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는 시기로,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 가치가 충돌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의 한국 사회는 전후의 혼란과 급격한 경제 성장, 사회 변화의 격동기를 겪고 있었으며, 윤희중의 환상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의 우월감과 성공에 대한 환상은 1960년대 한국의 사회적 상승 지향성과 성공에 대한 강한 욕구를 대변한다. 또한, 그의 실망은 현대화 과정에서 겪는 개인적,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나타낸다. 이상적인 여인이라고 생각했던 하인숙이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윤희중의 실망은 당시 사회가 여성에 대해 가진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과 성적 순결에 대한 그가 가진 고정관념을 드러낸다. 그의 실망은 당시 사회의 성적 규범과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기대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합일 이전

40) 같은 면.
41) 같은 면.
42) 앞의 글, 190면.
43) 같은 면.
44) 같은 면.

에 윤희중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통해 자신의 심리를 상세하게 표현하였으나, 합일 이후에는 주로 1인칭 관찰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서술하며 자신의 감정을 간결하게만 드러낸다. 이는 하인숙이 〈어떤 개인 날〉을 불러 주겠다고 하는 장면까지 계속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서술 전환과 관련하여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신형철[45]의 분석을 따라 윤희중은 완전히 도시화된 인물로 간주하여 그가 무진을 바라보는 시각이 도시인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전제하에 텍스트를 읽게 되면 윤희중의 서술이 무진과 그곳의 인물들, 특히 하인숙에 대한 그의 인식이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윤희중의 서술이 그의 도시적 관점과 내면적 욕망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그의 서술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할 수 있다. 둘째, 윤희중의 자기 서사는 그의 내면적 욕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곽상순[46]도 분석하였듯이, 윤희중은 하인숙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상상하며, 이는 그의 서술이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윤희중의 자기 서사는 그의 개인적인 감정과 욕망에 의해 왜곡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윤희중의 서술은 하인숙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감정과 기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처럼 윤희중이 초기에는 하인숙을 이상화하다가 나중에 실망감을 표현할 때 변화하는 서술 전환으로부터 그의 서술이 하인숙의 실제 모습보다는 그의 감정적 변화에 더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윤희중의 서술이 객관적인 사실을 반영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적 욕망과 갈등을 투영하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5) 신형철, 앞의 글, 200-203면.

46) 곽상순, 「김승옥의 「무진기행」 연구 -'무진'과 '하인숙'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앞의 글, 270면.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윤희중의 서술이 신뢰할 수 없음을 밝히고, 독자는 윤희중의 전반부 자기 서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이는 소설의 구조와 서술 기법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등장인물의 심리와 동기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서술적 변화는 독자가 소설의 서술자, 특히 그가 주인공일 때 그의 자기 서사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고 소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무진기행」의 이같은 독해가 페미니즘적 읽기나 다시 읽기 과정을 굳이 도입하지 않아도 도출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인숙이 서울행을 포기한 것을 근대화와 도시화에 대한 사회적 욕망의 포기로 해석하기보다는, 윤희중의 태도 변화 후에 일어난 내면적 주체성의 변화로 분석한다. 하인숙은 그의 질문의 의도를 간파한 듯 "절 나무라시는 거죠? 착하게 보아주려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착하지 않을 거예요."[47]라고 대답한다. 그녀의 대답은 사르트르[48]의 존재론적 관점에서 사회적 기대와 개인의 정체성 사이의 긴장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하인숙은 당시 미혼여성에게 기대하는 처녀라는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면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착한 여성"[49]이란 사회적으로 그렇게 바라봐 주는 시선에 의해 그렇게 평가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인식한 것 같다.

하인숙과 윤희중 사이의 대화는 사르트르의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개

47) 김승옥, 앞의 글, 190면.

48) 사르트르를 참조하면, 개인이 자신의 주체성을 인식하는 것은 그 주체를 변화시키는 행위로, 자신의 신념, 가치,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인식과 그로 인한 변화를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식이 단순히 외부 세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반유대주의자가 자신이 반유대주의자임을 인식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행동과 신념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인식은 그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인이 된다(장 폴 사르트르, 이희영 옮김, 『실존이란 무엇인가』, 동서문화사, 2017, 175-206면 참조.).

49) 김승옥, 위의 글, 190면.

인이 사회적 규범에 어떻게 반응하고, 이러한 규범이 개인의 자유와 본질을 어떻게 구속하는지를 탐구한다. 윤희중과의 합일 이후, 하인숙은 자신이 그동안 미혼 여성은 처녀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자신의 실체를 숨기고 살아 왔던 것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착한 여성”[50]이라는 기준 자체가 사회적 구성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녀가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직면하는 과정을 나타내며,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인숙의 인식 변화는 단순히 윤희중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사회적, 성적 규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로 이어진다. 하인숙은 사회적 시선과 기대에 순응하며 착한 여성으로 행세해 왔지만, 이제는 그러한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고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탐구하려는 결단을 내리게 된다. 이는 하인숙이 사회적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영훈은 김승옥 작가가 50년 동안 뇌리에 남아 있던 충격에 주목한다. 김승옥이 인간이란 남들이 하니까 자신도 그대로 따라 하는 맹목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우쳤다는 것이다.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타율적이고 모방적인 존재”[51]라는 것이다. 정영훈은 김승옥이 「건」의 어린 주인공을 내세워 모방적인 군중심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을지 모른다고 분석한다. 「무진기행」의 하인숙의 깨달음이나 「야행」의 현주의 각성이 이와 괘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하인숙의 주체성 재건 과정을 합일 직후부터 시작된 내면적 성찰과 자아 인식의 변화로 해석하며, 그녀의 결정과 행동이 단순히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고려할 때 윤희중의 자기 서사는 믿을 수 없는 서

50) 앞의 글, 190면.

51) 정영훈, 「김승옥 소설과 회심의 문제」, 『우리어문연구』 34, 우리어문학회, 2008, 502면.

술이므로 윤희중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소설 전반부에 묘사된 두 사람의 상황들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인숙은 윤희중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자신을 골방으로 데려가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그녀가 결혼 전에는 합일하지 않겠다고 세무서장에게 말한 사실과 윤희중이 세무서장의 동창이라는 사실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연 하인숙이 먼저 윤희중을 유혹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가치가 있다. 누가 먼저 합일을 제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합일로 인해 하인숙은 윤희중에게 실망감을 주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마주하게 될 세무서장과 박군에게조차 난처한 입장이 되고 말았다.

하인숙이 처녀가 아님이 드러난 골방은 두 사람 모두에게 행복한 장소가 아니며 특히 하인숙에게는 답답함과 압박감을 주는 더운 곳으로 변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윤희중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을까?"[52]라며 그녀에게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질문을 한다. 이에 대해 하인숙은 "절 나무라는 거죠? 착하게 보아주려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도 착하지 않을 거예요."[53]라고 답한다. 하인숙의 이같은 대답은 자신이 당시 사회가 미혼 여성에게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장면에서 하인숙은 자신이 싫어지는 경험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착하게 보아주려는 마음"[54]을 가진 사람으로 독자들이 상상해 볼 수 있는 인물로 김복순의 분석처럼 하인숙이 합일 전에 가졌던 이상적인 이미지의 윤희중이 있을 것이다. 하인숙은 곧이어 그에게 "선생님은 착한 분이세요?"[55]라고 질문하고 윤희중은 이에 대해 "인숙이가 믿어 주는 한

52) 김승옥, 앞의 글, 190면.
53) 같은 면.
54) 같은 면.
55) 같은 면.

."[56]이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은 얼마가지 않아 사라진다. 하인숙은 산책 중에 그에게 〈어떤 개인 날〉을 부르며 서울행 취소를 통보하는데 이는 그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음을 알려준다. 하인숙에게 윤희중은 더 이상 착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녀가 서울행을 포기한 것은 윤희중에게 이별 통보와 마찬가지 의미인 것이다.

여성 인물 주체성이 합일 직후에서 비로소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합일 직후에 재건된 것인지에 대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무진기행」에서 하인숙이 등장 초기부터 자신의 성격과 태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인물인 것을 작가가 묘사한다고 제안한다. 강지윤은 하인숙이 〈목포의 눈물〉을 부를 때의 장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독해한다.

> 하인숙은 서울에서 오페라 아리아를 성대에 익혔지만 경쟁에서 뒤처져 시골 학교 선생으로 살아가는 나날을 벗어나지 못할 공산이 크다. 뛰어난 음악가가 될 가능성에서는 멀어졌지만, 지방 중학교의 음악 선생으로서는 넘치는 이력을 가진 그녀는 지방의 속물들과 조신한 문학청년의 욕망의 대상으로만 남는다. 그녀는 유행가도 아니고 아리아도 아닌 새로운 양식의 노래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공부를 많이 해서 돌아 버렸다'는 소문이 무성한 역전의 광녀**나 세상의 그늘 여기저기를 떠돌았을 것이 분명하며, 결국 한밤중 냇가에서 **자살해 버린 술집 작부 또한 마땅한 양식 없는 삶에 속한 존재다.** 고향은 순수의 흔적을 지닌 세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살한 술집 작부의 시체가 물 위로 떠오르는 곳이기도 하다.[57] (인용자 강조)

하인숙이 〈목포의 눈물〉을 부르는 장면은 윤희중의 주관적인 시각으로 묘사되었다. 강지윤의 분석은 윤희중이라는 믿을 수 없는 화자의 주관적

56) 같은 면.

57) 강지윤, 「감수성의 혁명과 반(反)혁명-김승옥의 「무진기행」과 '여성'이라는 암호」, 앞의 글, 194면.

인 서사에 의존하여 하인숙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희중이 하인숙을 만나기 전에 광녀와의 만남에 대한 자기 서사를 독자들에게 미리 제시하지 않았다면, 강지윤이 하인숙에 대해 인용한 바와 같은 인상을 쉽게 그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인상은 하인숙이 서울행을 위해 윤희중을 유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인물로만 보이게 한다. 따라서 소설 전반부에서 윤희중의 자기 서사에 의존하는 독자들은 하인숙을 적극적으로 윤희중을 유혹하는 여성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으며, 소설 후반부에서 여전히 윤희중의 서사를 따르는 독자들에게 이는 윤희중이 하인숙을 무진에 남겨두고 혼자 떠나는 것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강지윤의 접근과 달리, 윤희중의 서사에 휘둘리지 않고 하인숙의 표정, 행동, 대답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중심으로 그녀에 대한 인상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하인숙이 원래부터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인물로, "자신의 욕망과 느낌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사람"[58]이었지만 무진에서 살아가면서 그러한 주체성이 일시적으로 억압된 삶을 살아가던 중 윤희중을 만나게 된 것으로 분석한다.

세무서장의 집에서 윤희중과 하인숙이 처음 만나는 장면은 서울에서 성악을 전공한 하인숙이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무진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윤희중의 서사를 배제하고 보면, 그녀의 대화와 행동은 솔직하고 독립적인 여성임을 시사한다. 대학 교육을 받은 그녀는 무진의 환경에서 남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한다. "죄송합니다."[59]라는 그녀의 반응은 무진 남성들의 기대와 사회적 규범에 맞추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58) 신형철, 앞의 글, 202면.

59) 물론 이러한 애매모호한 태도로 인해 윤희중은 하인숙의 서울행 통보의 진정성을 계속 의심하며, 그녀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듯하다. 여기에 〈어떤 개인 날〉의 노랫말 가사가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한 해석을 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무진의 남성들은 하인숙에게 〈목포의 눈물〉을 부르라는 요청을 하며 하인숙은 처음엔 주저하지만, 결국 노래를 부른다. 그녀의 노래 방식은 무진 남성들의 기대에 맞추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한다. 이는 그녀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남성들에게 자신이 불편함과 불만족을 느낀다는 것을 세련되게 표현하는 것을 보여준다.[60] 이러한 하인숙의 세련된 대처는 소설 후반부에도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 합일 이후 윤희중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세련되게 표현하며 서울행 거부를 통보하면서 〈어떤 개인 날〉을 불러 줄 때 그녀의 이러한 성격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61]

「무진기행」에서 윤희중과 세무서장 간의 대화는 1960년대 한국 사회의 성별 역학 및 여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 대화에 대한 분석은 하인숙의 성격과 그녀가 처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며, 작품에 대한 다층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두 남성 인물간의 대화는 하인숙의 행동과 성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당시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반영하는 남성 인물들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하인숙이 성공한 남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박군과 같은 인물에게 관심이 없다는 점은,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어떻게 인식되고 대우받았는지를 보여준다. 세무서장 조씨와 윤희중의 대화는 여성을 단순히 남성의 욕망이나 사회적 지위 향상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작가는 당대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비판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세무서장은 하인숙과 결혼할 마음은 없으면서 그녀가 세무서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성기하나를 밑천으로 시집가보겠다”[62]는

60) 김승옥, 앞의 글, 190면.
61) 같은 면.
62) 위의 글, 185면.

배짱으로 간주한다. 하인숙이 결혼 전 순결을 유지하려는 태도에 대해 세무서장 조씨는 이를 존중하는 태도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녀와 합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는 당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사회적 이중 잣대를 보여주는 예시로, 여성들에게는 결혼 전 순결을 요구하는 반면 남성들은 이에 대해 자유로운 점을 드러냄으로써, 당시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실제 여성의 삶 사이의 괴리를 강조한다.

이 대화에서 윤희중의 개인적인 반응은 세무서장 조씨의 심정보다 더욱 복잡하다. 기혼남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친구가 사귀고 있는 하인숙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인다. 대화를 통해 그는 하인숙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세무서장 조씨가 그녀를 미래의 반려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윤희중은 하인숙을 똑똑하고 순결한 여성으로 상상하지만, 이는 그녀의 실제 모습이나 의도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의 상상 속에서 하인숙은 자신의 욕망과 기대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여성으로 재구성된다. 하지만 세무서장 조씨가 하인숙이 죽은 경우를 가정할 때, 윤희중은 그녀가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를 그녀에게 투영하며 마치 그녀를 누군가 구해 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상을 한다. 이는 윤희중이 하인숙을 자신의 내적 서사에 편입시키는 방식을 보여주며, 이는 윤희중이 하인숙을 그의 상상과는 다를 수 있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작가가 의도적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을 전환하는 기법은 화자의 주관적 진술이 믿을 수 없는 진술임을 밝힘으로써 독자가 서술 이면의 진실에 도달하도록 하는 작가의 의도라는 점을 분석하였다. ‘역으로 읽기’나 ‘젠더화된 읽기’와 같은 독법 이전에 윤희중이라는 남성 화자의 자기 중심적인 서술을 배제하도록 하는 서술적 기법은 피셔[63], 노리스[64], 조은정[65]과 같은 연구자들이 분석한 대로 제임스 조이스와 같은 작가들이 이미 자주 사용한 기

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인숙의 주체성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은 현대 독자가 현대적 사고나 특별한 방식으로 읽기 때문에만 가능한 독해가 아니라 텍스트 자체에 나타난 서술적 전환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언제든지 도출될 수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하인숙의 주체성에 대한 독해를 저자의 의도로 분석한다. 실제로 김승옥 작가가 활동할 때 김현 비평가는 문학이 독자들에게 무지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지의 소산임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66] 당시 작가들은 대부분 독자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문학의 역할에 자의식을 가지고 창작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67] 김승옥의 중·후기 작품에 나타나는 여성 주체성을 고려해 볼 때, 서술의 전환을 하인숙의 주체성에 대한 작가의 의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4. 남성 화자의 자기 기만과 극적 아이러니

하인숙이 만보 중에 〈나비부인〉 중 〈어떤 개인 날〉을 부르며 윤희중에

63) Fischer, Therese, "From Reliable to Unreliable Narrator: Rhetorical Changes in Joyce's 'The Sisters,'" *James Joyce Quarterly* 9.1, 1971, pp. 85-92 참조.

64) Norris, Margot, "Narration under a Blindfold: Reading Joyce's "Clay,'" *Modern Language Association* 102.2, 1987, pp. 206-215 참조.

65) 조은정, 「『더블린 사람들』 중 「진흙」에 나타나는 이중 목소리와 이중 패러디」, 『신영어영문학』 81, 2022, 157-180면 참조.; Cho, Eun Jung, "A Cognitive Approach to Text Analysis: Conceptual Blending of Maria's Images in 'Clay' from *Dubliners,"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68, pp. 307-338 참조.

66) 김현, 『한국 문학의 위상』, 문학과지성사, 1996, 31면.

67) 정영훈, 『윤리의 표정』, 민음사, 2018, 9면.; 조은정은 「자매들」("The Sisters")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에피퍼니를 분석하면서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등장인물의 에피퍼니와 상관없이 독자의 에피퍼니를 의도하고 지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조은정, 「「자매들」에 나타난 소년의 에피퍼니」, 『신영어영문학』 76, 167-168면.).

게 서울행 포기를 통보하는 장면을 살펴보자.

> 나는 여자를 웃기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여자는 웃지 않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거렸다. 한참 후에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저 서울에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여자의 손을 달라고 하여 잡았다. 나는 그 손을 힘을 주어 쥐면서 말했다. “우리 서로 거짓말은 하지 말기로 해.” “거짓말이 아니예요.” 여자는 빙긋 웃으면서 말했다. “〈어떤 개인 날〉 불러드릴께요.” “그렇지만 오늘은 흐린걸.” 나는 〈어떤 개인 날〉의 그 이별을 생각하며 말했다. 흐린 날엔 사람들은 헤어지지 말기로 하자.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가까이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끌어당겨주기로 하자. 나는 그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사랑한다〉라는 그 국어의 어색함이 그렇게 말하고 싶은 나의 충동을 쫓아 버렸다.
>
> 우리가 바닷가에서 읍내로 돌아온 것은 저녁의 어둠이 밀려 든 뒤였다. 읍내에 들어오기 조금 전에 우리는 방죽 위에서 키스를 했다. “전 선생님께서 여기 계시는 일주일 동안만 멋있는 연애를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헤어지면서 여자가 말했다. “그렇지만 내 힘이 더 세니까 별 수 없이 내게 끌려서 서울까지 가게 될 걸.” 내가 말했다. (중략) 나는 아무 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아무 것도. 나는 이모에게 소주를 사 오게 하여 취해서 잠이 들 때까지 마셨다. 새벽녘에 잠시 잠이 깨었다. **나는 이유를 집어낼 수 없이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그것은 불안이었다.** “인숙이.”하고 나는 중얼거려 보았다. 그리고 곧 다시 잠이 들어 버렸다.[68] (인용자 강조)

이 장면에서 하인숙의 말과 행동은 그녀가 윤희중과의 관계를 끝내려고 결심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선생님, 저 서울에 가고 싶지 않아요.”[69]라는 그녀의 말은 그녀의 결정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윤희중이 그녀

68) 김승옥, 앞의 글, 192면.

의 손을 힘주어 잡는 것은 그의 불안과 절박함을 반영하는 반면, 하인숙의 여유로운 태도는 그녀가 이미 자신의 결정에 만족하고 그 결정을 통해 자유를 얻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적 자유 개념과 연결될 수 있다. 하인숙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을 명확하게 표현함으로써, 사르트르가 말하는 자유의 실천을 보여주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윤희중이 하인숙의 손을 잡고 "우리 서로 거짓말은 하지 말기로 해."[70] 라고 말할 때, 하인숙은 "거짓말이 아니예요."[71]라고 답하며 빙긋 웃는다. 이 웃음은 그녀가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자신의 주체성을 재건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윤희중이 힘주어 잡은 손은 그의 불안과 절박함을 드러낸다. 하인숙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자유를 향한 결단을 굳건히 한다. 이 장면도 하인숙이 윤희중을 먼저 사랑하거나 유혹했다고 하는 윤희중의 자기 서사와 불일치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사실 하인숙이 먼저 원해서 윤희중과 합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반대인지 그 상황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의 친구 세무서장과 사귀고 있는 여자와 합일을 하는 윤희중에 대해 하인숙이 오히려 그에게 더 많은 실망을 하였을 수 있다. 윤희중이 이런 이야기를 묘사하지 않으니 독자는 알 수가 없지만 윤희중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회피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1인칭 주인공의 자기 서사는 이러한 점에서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하인숙이 윤희중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분위기를 감지한 독자에게 있어 그녀가 만보 중에 부르는 오페라 〈나비부인〉의 〈어떤 개인 날〉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 아리아는 원래 나비부인이 미국으로 떠난 남편의 귀환을 기다리며 지고지순한 사랑과 재회의 희망을 노래하는 장면에서

69) 같은 면.
70) 앞의 글, 192면.
71) 같은 면.

불려 진다. 따라서 이 노래를 부르는 여자는 지고지순한 사랑의 대명사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셈이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이 아리아가 하인숙의 윤희중에 대한 이별의 메시지로 재해석될 수 있다. “〈어떤 개인 날〉 불러드릴께요.”[72]라는 하인숙의 말은 이별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윤희중에게는 이별의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요구처럼 들린다. 〈어떤 개인 날〉은 이별과 관련된 노래로, 윤희중은 이 노래가 상징하는 이별의 의미를 알고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은 흐린 걸.”[73]이라고 말하며 이별을 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윤희중은 “그렇지만 내 힘이 더 세니까 별 수 없이 내게 끌려서 서울까지 가게 될 걸.”[74]이라고 말하며 그녀의 결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은 그의 희망과 바람을 나타내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상황에 대한 통제와 권력을 주장하는 발언이며 1960년대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주도권을 잡거나 결정을 내리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인숙은 그의 강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정을 굳건히 한다. 이는 하인숙이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서, 사르트르가 말하는 존재의 근거를 자신 안에서 찾아내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하인숙이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윤희중과의 관계에서 그를 떠나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순간이다.

하인숙의 결정은 그녀가 윤희중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실망과 함께 가부장적인 사회의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반응을 나타낸다. 윤희중은 그녀가 처음 기대했던 이상적인 조력자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녀를 한정된, 성적으로 수동적인 역할로 보는 가부장적 시각을 대변하는 인물로 드러났다. 하인숙은 이러한 윤희중의 태도에 실망하며, 그녀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행을 거부한다. 하인숙의 선택은 그녀가 겪는

72) 김승옥, 앞의 글, 192면.
73) 같은 면.
74) 같은 면.

사회적, 성적 압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지키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하인숙의 내면적 성장과 자아 인식의 변화를 강조하며, 그녀가 단순한 사랑의 대상이나 희생양이 아닌,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인물로 분석한다. 하인숙의 이야기는 당시의 사회적 구조와 여성의 역할에 대한 반성적인 시각을 제공하며, 가부장제 시선을 느끼는 사회 속에서 여성의 자존감 및 주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강조한다.[75)]

이 소설에서 작가가 하인숙의 결단으로 소설을 마치지 않는 점은 중요하다. 윤희중에게 서울행을 거부한다고 통보하는 하인숙의 대사로 소설이 끝났다면, 독자는 하인숙의 결단에 더 주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하인숙의 이야기를 간결하게 마무리하고, 다시 윤희중의 이야기로 돌아가며 이때 그의 서사는 다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전환된다

75) 한 심사자분이 제시한 '하인숙의 서울행 포기의 동인에 대해서는 윤희중이 자기를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미리 자신이 스스로 서울행을 포기함으로써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다'는 독해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윤희중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 수용가능한 내연녀의 개념으로 젊은 여자를 후원할 수 있는 성공한 유부남이 되었습니다. 즉, 외적인 그의 상황은 하인숙을 서울로 데려가서 의식주를 후원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의 내적인 상황을 살펴보자면, 그는 하인숙의 비처녀라는 사실에 실망을 하였지만, 그녀를 데리고 갈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전보를 받고 고민하거나 편지를 쓰고 찢는 행동 외에도 1) 꺼져버린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했다는 행동이 주는 상징성 2) 하인숙의 서울행 포기 통보에 '우리 서로 거짓말은 하지 말기로 해'라는 그의 대답 3) '내 힘이 더 세니까 별 수 없이 내게 끌려서 서울까지 가게 될 걸'이라고 말하는 것 등에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윤희중의 외적인 상황과 내적인 상황은 모두 하인숙을 데리고 서울로 가는 것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혼자서 무진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아니라 하인숙이 그를 따라 서울 가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녀의 진심이라면 그녀를 억지로 끌고 서울로 데리고 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라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소설에서는 그가 애매모호하게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고 하인숙의 서울행 포기 통보에 대해 막연히 불안감으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인숙이 서울행을 포기한 것은 자기에게 실망한 남자를 믿고 서울로 가더라도 그에게 존중을 받는 삶이 아니라 그의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을 알고서 가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인숙의 서울행 포기는 단순한 개인적 실망을 넘어서, 사회적, 성적 규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을 통해 자신의 주체성을 재건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인숙이 〈나비부인〉의 아리아 중 〈어떤 개인 날〉을 부르는 장면에서 윤희중은 그녀의 감정과 의도를 해석하려 하며 그녀가 서울행 포기를 통보하였지만 그는 이를 진정성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 윤희중은 하인숙이 서울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어떤 개인 날〉을 부르는 것을 듣고, 그녀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비부인〉의 서사가 나가사키에서 무진으로 옮겨오면서, 하인숙이 핀커튼을 기다리는 나비부인의 심정으로 노래한다고 생각하였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다음 날 서울의 아내로부터 전보를 받고 나서 내적 갈등을 하는 윤희중은 하인숙에 대한 자신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라고 항변해 보지만 결국 아내와 타협한다. 이 타협은 그가 무진에서 하인숙과 쌓은 추억은 여행지에서의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나 다름이 없다. 윤희중은 타협을 한 뒤에도 아내 몰래 하인숙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를 쓰지만 결국 찢고 만다. 이제 하인숙에게 자신이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지만 그는 이렇게 해서라도 하인숙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을 어떻게든 보이고자 한다. 편지를 쓴 것은 그의 진심이며 편지를 찢는 것은 그의 진심이 아니라 외부의 상황에 의한 것으로 보이려는 것이다.[76]

> 덜컹거리며 달리는 버스 속에서 나는, 어디쯤에선가, 길가에 세워진 하얀 팻말을 보았다. 거기에는 선명한 검은 글씨로 '당신은 무진읍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씌어 있었다.

76)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당시 성공한 유부남들이 아내와 다른 사랑을 추구하며 젊고 아름다운 처자를 후원하였듯이 윤희중도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혼자서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여러 가능성 중에서 하인숙이 그에게 먼저 이별 통보를 하였고 그녀의 서울행 포기는 서울행 거부가 되어 그녀를 설득할 재간이 없으며 다시 서울행을 제안하더라도 하인숙이 완강하게 거부할까 두렵기 때문에 혼자 떠났을 수도 있다. 윤희중은 이렇게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독자에게 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믿을 수 없는 진술을 더하는 결과만 될 뿐이다.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77]

소설의 이 마지막 장면에서 윤희중의 내면적 갈등과 자기기만은 절정에 달한다. 마지막 문장은 윤희중이 하인숙을 데리고 가려는 시도조차 못하고 영원히 떠나는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버스에 오르기 직전까지 윤희중은 하인숙과의 관계가 여행지에서의 일탈이라는 것을 극구 부인하며 진정성을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친다. 하지만 작가는 그의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여행지에서의 일탈적 행위에 불과했다는 점을 여행지를 상징하는 푯말로 보여줌으로써 그의 자기기만을 폭로한다. 이러한 문학적 장치는 버스에 오르기 직전까지의 윤희중의 서술조차도 신뢰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작가가 윤희중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독자에게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독해하는 경우, 작가는 윤희중과 같은 인물을 통해 당시 사회의 성별 역할과 남성 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윤희중이라는 인물은 남성이 여성을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잘못 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이는 독자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윤희중의 자기중심적 사고와 자기기만은 소설 「무진기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성은 하인숙에 대한 그의 인식과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작품 전체의 극적 아이러니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하인숙의 이별 통보는 자신의 주체성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결단적인 행동이며 이는 윤희중이 자신의 욕망을 사랑으로 포장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독자는 윤희중의 자기 서사를 따르면서도 그의 서술이 갖는 한계와 오류를 인식함으로써 그로부터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사회적 비판을 이해하게 된다.

77) 김승옥, 앞의 글, 194면.

1960년대의 대표적인 소설인 「무진기행」이 오늘날 교과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송영실[78]이 제기하는 논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이 소설이 가부장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현대 학생들에게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처럼 작가가 「무진기행」을 통해 당시 성공한 유부남들의 이중적인 기만을 희화화하고 고발하려 했다는 관점을 고려한다면, 이 작품은 당시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어떻게 단순히 성적 대상으로 간주되었는지를 비판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문학 작품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을 교육적 맥락에서 다룰 때, 단순히 소설의 표면적인 내용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의도, 당시의 사회적 맥락, 그리고 작품이 담고 있는 성찰적 요소들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작품이 제시하는 사회적, 문화적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학생들이 가부장제 사회의 구조와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시각을 인식하고, 현대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해 더 균형적이고 평등한 시각을 갖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문학 작품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사회적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 나오며

본 연구는 김승옥의 「무진기행」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작가의 문체 혁신과 개인의 발견에 주목하는 반면, 하인숙의 여성 주체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간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하인숙과 윤희중을 묘사하는 데

78) 송영실, 앞의 글, 67면.

있어 화자의 서술 방식의 전환과 하인숙의 주체성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점은 하인숙의 주체성이 윤희중의 주관적인 인식에 따른 자기 서사에 의해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 김승옥의 의도적인 구성을 통해 복잡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윤희중의 서술이 초기에는 하인숙을 이상화하고 순수한 사랑의 대상으로 묘사하지만, 그녀의 처녀성에 대한 실망감이 드러나면서 서술이 전환되는 것은 작가의 의도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술의 전환은 하인숙의 진정한 성격과 주체성을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윤희중의 자기 기만과 극적 아이러니를 통해 남성 화자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희화화하고 풍자하는 작가의 의도를 밝혀냈다. 이러한 분석은 「무진기행」이 단순한 남성 중심적 서사가 아니라, 여성 주체성을 탐구하고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는 복잡한 문학 작품임을 드러낸다. 본 연구로 인해 독자들이 작품을 다시 읽고, 작가의 의도와 문학적 전략을 깊이 있게 탐구할 기회를 가지게 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김승옥 작품이 단순히 전후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작품 전반에 걸쳐 일관된 주제를 향하고 있다는 시각을 제시하며 그의 문체나 서술 기법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분석은 김승옥 작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다양한 후속 연구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김승옥, 「무진기행」, 『김승옥 소설전집1; 무진기행』, 문학동네, 2021.

2. 참고 자료

강지윤, 「감수성의 혁명과 반(反)혁명-김승옥의 「무진기행」과 '여성'이라는 암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20, 181-199면.

_____, 「개인과 사회, 그리고 여성: 1950~1960년대 문학의 내면과 젠더」, 『민족문학사연구』 67, 민족문학사연구소, 2018, 511-548면.

곽상순, 「김승옥 단편소설의 여성인물 연구-「야행」과 「서울의 달빛 0장」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9,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0, 143-164면.

_____, 「김승옥의 「무진기행」 연구 -'무진'과 '하인숙'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44, 국제어문학회, 2008, 255-280면.

김명석, 『김승옥 문학의 감수성과 일상성』, 푸른사상, 2004.

김미란, 「국가 재건의 시대와 대도시를 배회하는 여성 산책자: 김승옥의 「야행」(1969)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2,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437-465면.

김보우, 「김승옥 소설의 글쓰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김복순, 「남성/여성 만보의 담론화 과정과 감각적 인식: 「무진기행」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3,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273-310면.

김영찬, 「김승옥 소설의 자기기만의 현상학」, 『한국학연구』 68, 한국학연구소, 2023, 463-488면.

김지하, 「무진나그네」, 『내가 만난 하나님』, 작가, 2015.

김현, 「구원의 문학과 개인주의」, 『현대 한국 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 문학과지성사, 1992.

_____, 『한국 문학의 위상』, 문학과지성사, 1996.

박혜경, 「남성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들」, 『한국문학연구』 19, 한국문학연구소, 1997, 5-22면.

송영실,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나타난 여성이미지 연구-남성작가의 소설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신형철, 「여성을 여행하(지 않)는 문학-「무진기행」의 정신분석적 읽기」, 『한국근대문학연구』 10, 한국근대문학연구, 2004, 199-238면.

양한진, 「김승옥 소설의 여성인물 변화연구」, 『한남어문학』 40, 한남어문학회, 2017,

137-160면.
장 폴 사르트르, 이희영 옮김, 『실존이란 무엇인가』, 동서문화사, 2017.
정영훈, 「김승옥 소설과 회심의 문제」, 『우리어문연구』 34, 우리어문학회, 2008, 495-521면.
_____, 『윤리의 표정』, 민음사, 2018.
조은정, 「『더블린 사람들』 중 「진흙」에 나타나는 이중 목소리와 이중 패러디」, 『신영어영문학』 81, 2022, 157-180면.
_____, 「「자매들」에 나타난 소년의 에피퍼니」, 『신영어영문학』 76, 2020, 159-184면.
진정석, 「글쓰기의 영도-김승옥」, 『문학동네』 7.여름, 문학동네, 1996.
차미령, 「김승옥 소설의 탈식민주의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최혜실, 「〈무진기행〉에 나타나는 귀향과 귀경의 구조」, 『국어교육』 81, 국어교육학회, 1993, 131-149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산문시대(散文時代)」, 검색일자 2020.12.20.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1068.
한상규, 「환멸의 낭만주의」, 『196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3.
한형구, 「김승옥론」, 『한국현대작가연구』, 민음사, 1989.
Cho, Eun Jung, "A Cognitive Approach to Text Analysis: Conceptual Blending of Maria's Images in 'Clay' from Dubliners,"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68, pp. 307-338.
Fischer, Therese, "From Reliable to Unreliable Narrator: Rhetorical Changes in Joyce's 'The Sisters,'" *James Joyce Quarterly* 9.1, 1971, pp. 85-92.
Norris, Margot. "Narration under a Blindfold: Reading Joyce's 'Clay,'" *Modern Language Association* 102.2, 1987, pp. 206-215.

<Abstract>

A Study on the Reconstruction of the Female Subjectivity in the Male Protagonist's Self-Narrative

−Focusing on Ha In-sook in "Record of a Journey to Mujin"

Cho, Eun Ju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narrative shift from the subjective perspective of the male protagonist/narrator, Yoon Hee-Jung, to an objective observer's viewpoint in Kim Seung-ok's "Record of a Journey to Mujin." Through this process, the main objective is to capture and explore the true character and the reconstruc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female character's subjectivity, which has been overlooked in the subjective self-narrative, in the latter part's objective, observer-centric narrative. While previous studies have primarily focused on Yoon Hee-Jung's perspective and narration, this study analyzes how the female character, Ha In-sook, reveals and transforms her subjectivity within Yoon Hee-Jung's observer-centric narration. Firstly, the study pays attention to how Yoon Hee-Jung's narration can be distorted by his inner desires and emotions, analyzing the changes in his urban perspective and his perception of Ha In-sook. Secondly, it examines how Ha In-sook, initially idealized in Yoon Hee-Jung's narration, is later portrayed through an objective and observer-centric viewpoint after his disappointment. This shift in narration draws the reader's attention to scenes where Ha In-sook deeply recognizes and reflects on Yoon

Hee-Jung's inner desires and social norms. These scenes reveal the process of Ha In-sook reconstructing her true self and subjectivity, indicating that her decision to abandon her journey to Seoul stems from a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her values and identity. Lastly, the study insightfully analyzes how Yoon Hee-Jung's self-deception in his relationship with Ha In-sook distorts his perception and attitude, contributing to the dramatic irony of the novel through his self-centered thinking and self-deception.

Key words: self-narrative, self-deception, female subjectivity, narrative shift, unreliable narrator, dramatic irony

투 고 일 : 2023년 11월 20일 심 사 일 : 2023년 12월 11일
게재확정일 : 2023년 12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3년 12월 22일